

# 결 정

2018 - 3022 신문윤리강령 위반  
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

# 주 문

스포츠동아(sports.donga.com) 2017년 12월 14일자(캡처시각) 「툽 여배우, 동영상 유포 “의붓 형제와 성관계”」 라는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치한다.

# 이 유

1.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<캡처시간 17. 12. 14. 22:43>

『깁 가돏, 포르노 영상 유포 “의붓 형제와 성관계”

<기사입력 2017-12-13 13:49>

할리우드 스타 깁 가돏의 포르노 영상이 유포됐다. 내용은 가돏이 의붓형제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.

11일(현지시간) 기술 전문 매체 마더보드에 따르면 가돗의 포르노 영상은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‘레딧(Reddit)’의 한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졌다. 하지만 이 영상은 가짜. 특히 이 영상 제작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다. 한 개인이 특별한 장비나 도구 없이 이미 공개돼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합성 포르노물을 제작했다. 해당 사용자는 가돗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 외에도 스칼렛 요한슨,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음란물을 만들었다.



이 사용자는 구글의 오픈소스 기계학습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인 ‘텐서플로’ 등을 활용했다.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, 유튜브 영상 등에서 유명인의 얼굴을 활용해 인공지능이 포르노 영상에 학습하도록 했다.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, 언뜻 보서는 진짜 가돗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.

유명인의 가짜 포르노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.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부정적 활용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. 이미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은 자신의 셀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다. 인공지능이 학습하기에 충분한 양의 얼굴 데이터만 있다면, 손쉽게 악의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.

동아닷컴 연예뉴스팀 기사제보 star@donga.com」

<<http://sports.donga.com/NewsStand/3/all/20171213/87712175/1>>

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

위 기사는 할리우드 스타 깐 가돗이 의붓형제와 성관계를 갖는 포르노 영상이 유포됐다는 내용이다. 그런데 가돗의 포르노 영상은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‘레딧(Reddit)’의 한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라는 것. 해당 사용자는 가돗

의 얼굴을 합성한 포르노 영상 외에도 스칼렛 요한슨, 테일러 스위프트 등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음란물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. 가짜 포르노인데도 기사 제목은 「깁 가돗, 포르노 영상 유포 “의붓 형제와 성관계”」이다.

한술 더 떠서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 「톱 여배우, 동영상 유포 “의붓 형제와 성관계”」라고 했다. 깁 가돗을 그냥 톱 여배우라고 해 국내 배우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목을 달았고 가짜 포르노를 진짜인 것처럼 왜곡해서 제목을 달았다. 또한 뉴스스탠드에 가돗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실제내용을 변형했다.

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①(표제의 원칙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8년 1월 10일

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

|     |       |     |
|-----|-------|-----|
| 위원장 | 김 용 담 | 김용담 |
| 위원  | 정 승 호 | 정승호 |
|     | 장 명 국 | 장명국 |
|     | 이 동 현 | 이동현 |
|     | 장 인 철 | 장인철 |
|     | 강 희   | 강희  |
|     | 김 영 모 | 김영모 |
|     | 박 현 갑 | 박현갑 |
|     | 박 미 경 | 박미경 |

○ 적용 조항

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「편집지침」 ①(표제의 원칙)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.